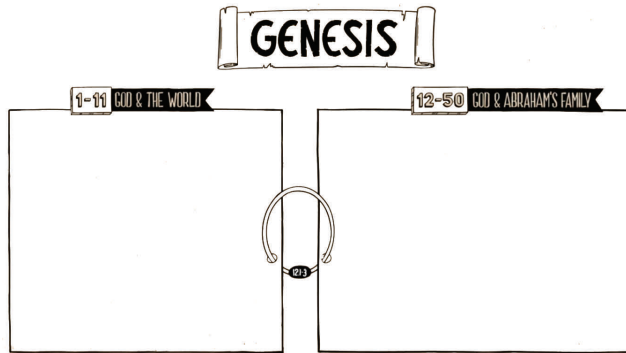


Genesis I (1~11장)



1. 창세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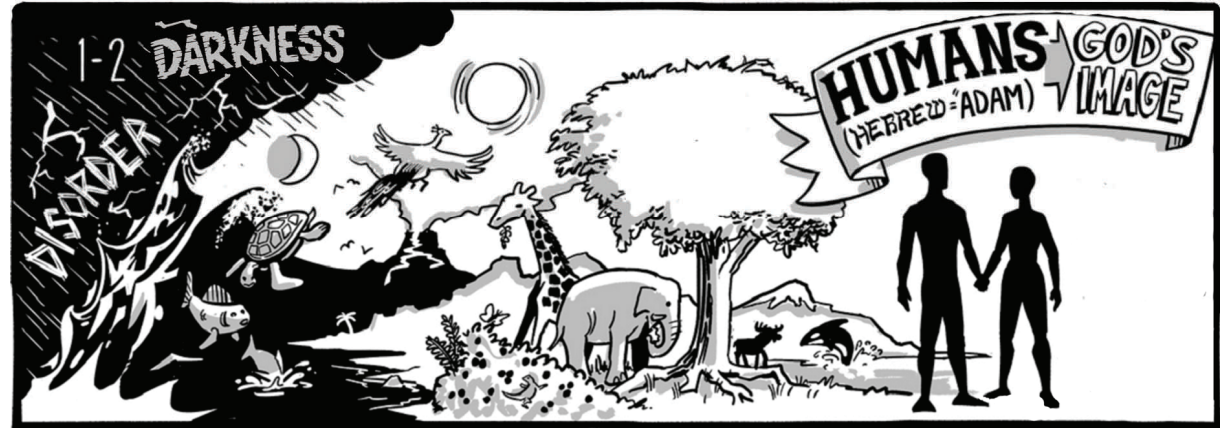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온 세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 12- 50장은 줌인(zoom in) 한 것처럼, 하나님과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사건이 연결고리처럼 이 두 부분을 이어줍니다.

이런 구조는 단서와 같아서,

- 한 권의 책으로서 창세기 전체의 메시지를 알 수 있고,
-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 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창조 (1~2장)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 상태(1:2)를 취하셔서, 질서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이끌어내시고,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히브리어로 사람)을 만드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감당할 역할과 목적에 관계된 것입니다. 즉 사람은

-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지어졌습니다.
-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임명 되었습니다.

맥락의 의미로 읽어보면,

- 그들은 이 세상에 부여된 가능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돌봄으로써,
-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생명이 번성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축복)이 바로 창세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3. 에덴 동산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인간은 그 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지,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 나타내는 바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정의하시고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셨습니다. →

-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선과 악의 기준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 인간의 자율성을 이용하여 스스로 선악을 정의할 것인가? →

이 선택에는 엄청난 위험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곧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4. 타락 (3장)

그래서, 3장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mysterious) 피조물,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소개가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게 분명해 지고, 사람을 꾀어 반역과 죽음으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야기 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따먹는다 해도 죽지

않으며, 되려 생명에 이르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 같다(like God)’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율성의 열매를 따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인간의 모든 이야기는 견잡을 수 없는 나선형의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p.5 마지막 그림 참조)

5. 타락의 결과와 원시 언약

그 첫째 피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옷을 만들고 서로에게서 벗은 몸을 감춥니다.

둘째 피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함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려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은 누가 먼저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야기 형식은 중단되고 여러 개의 시가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뱀과 인간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극적인 결과를(보응을) 짧은 시의 형태로 선언해 주십니다.

먼저 뱀에게 선언하십니다. 지금은 명백히

승리한 것 같으나 결국 패하여 흠을 삼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여자의 후손 또는 한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만, 이 위대한 승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뱀은 그냥 짓밟히지 않고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입은 승리자'에 대한 약속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mysterious)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의 흐름에서 볼 때,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반역을 꾀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을 구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선택에 따른 보응을 말씀히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

집안에서나 들판에서나 슬픔과 수고가 있으며, 결국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6. 타락의 심화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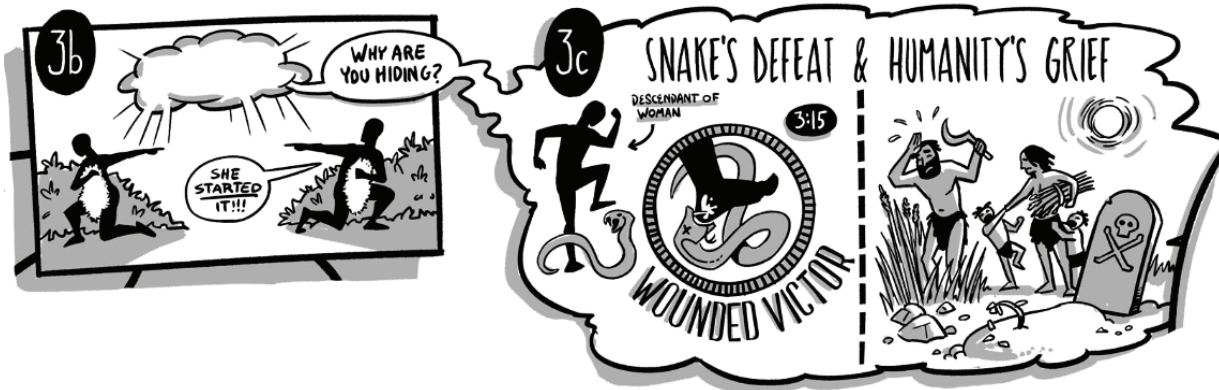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며 추락합니다. 3-11장에서 추적하는 내용은,

-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의 파장이 확대되는 것과
- 모든 차원에서 인간 관계들이 깨져가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인 아벨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죄에 굴복해 들에 있을 때에 아벨을 쳐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폭력과 탄압이 다스리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것은 (그의 후손) 라멕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는데, 그는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둔 첫 남성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아내를 재산처럼 여겨 쌓는 것이지요. 그리고 라멕은 자신이 가인보다도 더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불탄다는 노래를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조금은 의아한 용어가 나옵니다. '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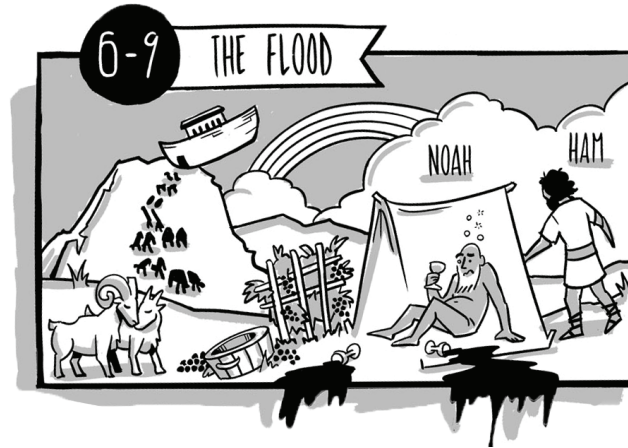




천사들이거나 '신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고대의 왕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라멕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거대한 전사들로 알려진 네피림을 낳습니다. 이들이 악한 천사들이건 고대 왕들이건 간에, 요점은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 폭력과 더 많은 타락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 하나님의 심판: 노아 홍수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망가뜨리고 서로를 파멸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계의 선함을 보호하시기 위한 열심에서 대홍수로 인류의 악함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흠없는 자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새로운 아담으로 위임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늘의 복을 다시 주십니다.



인류에 대한 소망이 생겼지만, 노아 역시 자기 동산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노아는 포도나무 동산을 가꿨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함은 장막 안에서 아버지에게 수치스런 짓을 합니다.

새로운 “아담”은 벌거벗었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첫 아담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향곡선을 그리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8. 바벨탑

바벨탑을 건설하는 기초 기술이 등장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벽돌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로, 도시와 높은 탑들을 어느 누구보다, 이전보다 더 크고 빠르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들에게 닿는 새로운 탑을 건설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반역과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에덴동산에서의 반역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졌지만, 모두 동일한 요점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세상에서



인간들이 옳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계속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장하는 바는,

-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래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 또한 즉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기로 선택했고,
-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깨어진 관계, 갈등, 폭력, 그리고 죽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날엔가 여자의 후손, 그 상처입은 승리자가 와서 악과 그 악의 근원을 패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악함에도,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주시고 구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걸까?”

그 답은 연결고리가 되는 다음 이야기 (창 12:1~3)에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창세기 1-11장 내용입니다.

